

---

#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성립의 기원과 역사성

---

박진영 (연세대학교)

## I. 번역문학이라는 보통명사

문학 용어의 하나로서 번역문학이라는 말이 처한 위상은 조금 어정쩡하다. 한국어 사전에는 문학 분야의 전문어로 번역문학이 정의되어 있으나 정작 문학 용어 사전이나 전문 사전 어디에도 번역문학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문학에 대한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는 비교적 명료해 보이는데, 적어도 외국문학이나 해외문학과 다른 뜻으로 쓰이며 세계문학이라는 말과도 준별된다. 그런가 하면 문학 번역이나 비교문학이 전문 사전에서 독자적인 항목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번역문학은 안정된 학술 용어나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번역문학: 다른 나라의 문학을 제 나라 말로 옮겨서 따로 독특한 예술미가 있도록 만든 문학 저술.

번역문학: 시, 소설, 희곡 등 외국의 문학을 자기 나라의 말로 옮겨서 독특한 예술미가 있도록 만든 문학. 외국문학의 창작 경향을 국내에 알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2-029056).

리거나 자국문학과와의 비교·연구를 하는 데 이바지한다.<sup>1</sup>

대표적인 한국어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풀이된바 번역문학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독특한 예술미를 지닌 것으로 인정된다. 또 문학 저술이나 문학이 유개념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번역문학을 독자적인 문학 작품으로 일컬어야 마땅하다. 후자의 뜻풀이에서는 번역문학의 쓰임새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낱말은 번역이 아니라 문학일지 모른다.

별달리 인상적이라 할 것도 없어 보이는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가 흥미로운 까닭은 또 있다. 어느 외국어 사전이나 외국의 문예사전을 뒤적거린들 번역문학이 표제어로 오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 번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학이 아니라 명백히 학문의 갈래를 가리키는 비교문학이 당당한 몫을 차지하는 현상과도 대비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심상하게 들릴 직한 번역문학이라는 한자어는 기실 일본에서 유래한 번역어일 공산이 크다(王向遠 195). 일본어 사전에서 번역문학은 자국어로 번역된 외국문학이라는 범박한 뜻풀이로 그치곤 한다. 그런데 문학 전문 사전에서는 메이지(明治) 시기의 번역문학이 서양 문명과 사상, 동시대의 문화와 문예를 수용한 결정적인 통로일 뿐 아니라 근대문학의 양식이나 문체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이고도 능동적인 역할을 도맡았다는 점에서 줄곧 역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왔다(日本近代文學館 編 486-89; 三好行雄, 竹盛天雄, 吉田熙生, 浅井清 編 448-49). 아닌 게 아니라 일본 근대문학사 연구의 중요한 영역으로 번역문학이 포착된 것은 이미 쇼와(昭和) 초기부터의 일이며,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요 메이지 문학 연구자인 야나기다 이즈미(柳田泉)에 의해서다(柳田泉).

1.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199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떠할까? 번역문학이라는 말이 어떤 경위로 한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올랐을까? 대개의 외국어 사전과 달리 한국어 사전과 일본의 문학 전문 사전이 번역문학을 외면하지 않은 배후에 모종의 문학사적 조건이나 환경이 간섭했다고 보아도 좋은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번역문학이라는 한국어 보통명사의 기원이며 기원에 담긴 역사성이다. 번역문학과 한국문학,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세계문학과 번역문학의 공교한 연쇄를 재음미하기 위해서라면 번역어로서 번역문학이라는 말부터 차분히 되짚어 볼 가치가 있다.

## II. 발견된 번역문학, 자국문학의 상상

한국에서 번역문학이라는 말을 처음 구사한 것은 와세다(早稻田) 대학 철학과 유학생 이광수다. 『무정』 연재를 코앞에 두고 발표된 이광수의 「문학이란 하오」(1916)는 리터래처(literature)의 번역어로서 문학이라는 낯선 관념을 정연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일 뿐 아니라 짜임새를 갖춘 문학 개론의 면목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이광수는 문학의 어의(語義)를 필두로 총 11개 항목으로 체계화된 문학론의 결미를 ‘조선문학’으로 마물렀다. “조선문학이라 하면 무론 조선인이 조선문으로 작(作)한 문학을 지칭할 것”(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8: 1)이라며 말머리를 잡은 ‘조선문학’ 항목의 진수는 한문과 중국문학을 철저히 타자로 돌렸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이광수가 이해한 바에 따르자면 국문학 또는 국민문학으로서 조선문학의 성립 가능성이 유학과 한문에 의해 봉쇄된 탓에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전설적 문학, 중국소설의 번역문학, 시조와 가사가 간신히 살아남았을 따름이다. 근대적인 국문과 국문문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한 전기는 성경과 기독교 문학의 번역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것이 이광수의 주장이다. 「문학이란 하오」에서 언명된 국문문학의 요체가 한문학

이나 한문문학을 소외시킨 최초의 통사적 시각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또한 한문이라는 언어를 일관성 있게 배척함으로써 유학과 중국문학의 속박에서 풀려난 새로운 에크리튀르, 이른바 언문일치가 실현되거나 실현되었다고 믿은 근대 한국어로 된 근대문학의 언어를 창안해 낼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해 보인다(황중연 472-73).

이광수가 처음으로 보여 준 번역문학이라는 말의 용례가 자못 흥미로운 까닭은 한문과 국문의 대치 속에서 번역문학의 역사적 소임과 책무가 분명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서, 사략, 소학이든 중국소설이든 일찍이 번역을 통해 국문학을 성립시킬 수 있는 호기가 도래했건만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비단 언어 탓만이 아니라 “자아라는 자각”의 실종, “조선문학 율흥(蔚興)”(이광수, 「문학이란」 8: 1)에 대한 주체적 의식의 몰각 때문이다. 따라서 이광수가 앞서 언급한 번역문학과 전혀 다른 내포를 지닌 번역문학이라는 용어를 바로 뒤이어 내세운 점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일 조선문학의 현상을 문(問)하면 여(余)는 울긋불긋한 서사(書肆)의 소설을 지(指)할 수밖에 없거니와 일재(一齋), 하몽(何夢) 제씨의 번역문학은 조선문학의 기운을 촉(促)하기에 의미가 심(深)할 줄로 사(思)하노라. 단 이상 제씨가 과연 조선문학을 위하여라는 의식의 유무는 여의 부지(不知)하는 바로되 제씨가 충실하게 번역문학에 종사하며 일변 문학의 보급을 기(企)하는 연구와 운동을 불태(不怠)하면 제씨의 꿈은 결코 불소할 줄 신(信)하노라. (이광수, 「문학이란」 8: 1)

이광수가 조선문학 신흥의 분수령으로 지목한 번역문학이란 1910년대를 풍미한 신문 연재소설이자 번안소설을 가리킨다. 당대의 단행본 국문소설을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이광수에 의해 막중한 소명을 떠맡게 된 조중환과 이상협의 번안소설은 순 한글의 근대 한국어 문장으로 거듭난 메이지 시기의 대중소설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재번안된 서양소설이

---

다(박진영, 『번역과』 301-423). 이광수가 되풀이하여 강조한 대목은 리터래처로서 번역문학이 자국 근대문학의 성장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문학사적 역할과 책임이며, 국문학 성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다.

「문학이란 하오」를 통해 실험된 용례는 번역문학이라는 용어가 애초에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번역이야말로 타자화를 통한 자국어에 대한 상상, 자국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의 기원인 동시에 효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표현했다. 그런 뜻에서 이광수는 번역문학이라는 말을 빌려 한국문학의 자아와 타자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출하고 스스로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작 한 달여 만에 『무정』이 같은 지면에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첫고등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문학이라는 말을 둘러싼 새로운 용법과 효용이 이광수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무정』에 대한 기대감을 앞질러 선창한 양건식의 평론이 같은 지면에 등장하면서 번역문학이라는 용어가 다시 한 번 제안되었다(양건식, 「춘원의 소설을」). 홍명희보다 한 살 아래, 최남선보다 한 살 위인 양건식은 이십 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문필 활동을 시작한 늦깎이 문사다. 불교 전문지 편집자로 출발한 양건식이 문명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무정』 연재를 사나흘 앞두고 제목 그대로 이광수의 새 연재소설을 홍보하는 자리에서다.

그런데 “여(予)는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춘원의 소설을」 1: 1)로 첫마디를 연 양건식은 막상 지면의 대부분을 근대문학론의 요지를 집약하는 데에 할애했다. 소설의 심미적 가치와 상상력의 성격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여 준 양건식은 1910년대 계몽주의적 소설관의 변화와 진일보된 성취를 대변한다(이선영 118-22; 고재석 108-11). 한결 흥미로운 것은 이광수와 마찬가지로 메이지 초기의 리터래처 관념을 그대로 좇은 양건식의 눈길이 동시대의 문단 형세와 지향을 문학사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다.

양건식은 평론의 마지막 대목에서 종로의 서점가를 점령한 소설의 흥성

은 겉보기와 판관으로 한낱 구시대와 잔류물이요, 천편일률적인 이야기책에 불과함을 꼬집은 뒤 작가와 출판업자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춘원의 소설을」 2: 1). 사정이 그러하니 이광수의 새 연재소설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는 논지다. 하지만 이광수와 양건식은 서로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정작 어떤 소설이 출현할지 알 수 없는 판국 아닌가? 실은 이광수조차 연재 개시 직전까지 어떤 계층의 독자를 향해 무슨 문제를 구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니(박진영, 『책의 탄생과』 235-39) 달리 말하자면 무엇을 주제로 어떠한 형식의 소설이 탄생할지 작가 자신도 몰랐다.<sup>2</sup> 그렇다면 무명 문사 양건식의 희망과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었을까?

양건식은 이틀에 걸쳐 개진한 리터래처로서 조선문학의 기원을 이인직의 신소설이라 잘라 말했다. 바로 앞서 언급된바 울긋불긋한 표지로 포장된 무정전, 무식전의 신소설과 이인직의 신소설은 전혀 다른 내포를 지닌 용어다. 전자가 새로 출판된 단행본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라면 후자는 이인직에 의해 개발된 역사적 양식을 가리킨다. 신소설이라는 명칭도 새로운 문체도 이인직의 고안품임이 틀림없으나 이인직이 붓을 놓은 뒤에 조중환과 이상협의 번역문학 즉 번안소설이 등장했다. 때마침 신소설의 태두 이인직은 「문학이란 하오」가 마무리된 지 이틀 만이자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1916)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타계했으니 이광수와 양건식에 의해 곧장 문학사적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양건식이 새로운 시대의 후계자로 주의 깊게 지목한 것은 일찍이 유학생 잡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한 이광수와 진학문이다. 이광수는 「어린 희생」, 『무정』, 「헌신자」, 「금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양건식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유학생 잡지에 실린 단편 「무정」을 가리킨다(고재석 111). 몽몽(夢夢)이라는 필명을 쓴 진학문은 소년 시대부터 일본에 유학하면서 줄곧 유학생 잡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열세 살, 열다섯 살의

2. 『매일신보』 1916.12.26-29: 3; 『매일신보』 1917.1.1: 3.

중학생 시절에 발표한 「쓰러져 가는 집」과 「요조오한」(四疊半)의 작가 진학문은 그 밖에도 투르게네프(Ivan Sergeevich Turgenev), 안드레예프(Leonid Nikolaevich Andreev)의 산문시라든가 코롤렌코(Vladimir Galaktionovich Korolenko), 자이체프(Boris Konstantinovich Zaitsev), 체호프(Anton Cheknov) 단편소설의 번역가이기도 하다(박진영, 「번역가 진학문과」 293-94). 이광수와 진학문이야말로 근대문학사의 신기원으로 바라 마지않는 대표 주자인 터에 이광수가 먼저 새로운 연재소설을 내놓는다니 양건식이 환영사를 아낄 수 없는 마당이다.

요컨대 양건식은 이인직의 신소설, 조중환과 이상협의 번역문학, 이광수와 진학문의 소설로 이어지는 구도를 요연하게 체계화했다. 한 달 사이에 발표된 이광수와 양건식의 평론이 일본을 경유한 근대문학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거니와 그러한 단절을 바탕으로 양건식이 근대 초창기 문학사의 정곡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면모다. 다만 양건식은 조중환과 이상협이 번안소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채 이광수의 장편소설이 근대문학사의 첫길을 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근대적인 문학론과 한국 근대소설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바탕을 둔 양건식의 평론은 연재 매체의 홍보성 짙은 찬가나 의례적인 헌사를 훌쩍 뛰어넘는 지평을 선보였다.

양건식이 번역문학에 대해 다시 주목한 것은 이광수의 「무정」이 마무리되고 나서의 일이다. 양건식은 뜻밖에도 중국문학으로 발길을 돌린 데다가 전근대문학에 관심을 기울일 참이었으니 일 년 만의 변신치고는 과격적이다. 중국문학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첫 번째 평론이자 양건식의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 것이 바로 「지나의 소설 급 회곡에 취하여」(1917)다. 양건식은 그전에 불교 전문지를 통해 『서유기』를 소개하면서 『천로역정』이나 『아라비안나이트』에 견주어 오히려 『서유기』가 더 빼어난 종교소설이라 평가하고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양건식, 「소설 『서유기』」 47-49). 그런데 몇 달 뒤에 『매일신보』에 발표된 「지나

의 소설 급 회곡에 취하여」는 훨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면모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중국문학사에 대한 학문적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지나의 소설 급 회곡에 취하여」의 기축은 원곡(元曲) 이래의 백화문학(白話文學)을 통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평론의 앞머리에서 양건식은 조선에서 중국문학이란 유가의 경전인 십삼경(十三經), 역대 정사인 이십일사(二十一史), 당송 시대의 시부(詩賦) 문장에 그친 것이 실상임을 지적했다. 반면에 패사소설(稗史小說), 회곡, 전기(傳奇)를 지나치게 박대한 탓에 조선 문학에 별다른 공적을 남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기거나 아예 내팽개쳐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건식은 중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자국문학의 발달에 자(資)코자 함”(「지나의」 1: 1)이라고 못 박았다.

양건식이 중국문학을 가리켜 세계 문단에서 이채를 띤다고 말하면서 외국문학의 하나로 인식한 태도는 진지하게 숙고할 가치가 있다.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이란 그동안 누려온 지위와 역할에 몰아닥친 격변을 압축적으로 드러낼뿐더러 근대 한국에서 중국문학이라는 것의 운명을 예고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중국문학은 결코 한국문학보다 앞설 수 없으며, 더 이상 주류적인 권위를 장악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19세기 유럽을 구심점으로 삼은 근대 서양문학에 밀려나 문학사의 외곽에서 가까스로 명맥만 부지해야 했다. 한국문학의 향배는 물론이려니와 외국문학의 번역 여부를 판정하는 일마저 일본 문단의 동향에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 진상에 가깝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문학 번역은 한일병합과 신해혁명 직후에 휴지기를 거치면서 명청 시대 백화소설이나 량치차오(梁啓超) 위주의 계몽문학과 날카롭게 단절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한 인적, 학술적, 문화적 네트워크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일본문학이 더 이상 한국어 번역을 요구하지 않은 채 번역의 지평에서

---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현상과 더불어 중국문학이 겪은 이질적인 국면은 동아시아 문학의 행보와 근대적인 상상력의 분기를 지배한 중축이다(박진영, 「중국문학 및 일본문학」 274-80).

중국문학이 직면한 치명적인 위기는 여느 외국문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번역되거나 근대 매체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자국문학 즉 한국문학사와 접변을 일으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될 터다. 전근대 시기와 달리 중국문학이 마땅한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했뿐더러 그나마 한국어 번역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면 분명 질적인 격절이다. 그러한 뜻에서 양건식이 중국문학을 외국문학의 하나로 바라본 대목이야말로 중국문학 번역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고 한국문학의 진작을 촉발시킬 밑바탕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양건식이 천명한바 “대저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자국문학의 발달에 자(資)코자 함”(「지나의」 1: 1)이라는 명제는 한국문학사에 대한 투철한 검증이나 비판의 소산도, 양건식 득의의 해안도 아니다. 단지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축적된 중국문학사 연구 성과를 그대로 베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소설 『서유기』에 취하여」에서 최고의 종교소설로 『서유기』를 꼽은 까닭은 비단 불교 전문지에 실린 덕분이 아니다. 「지나의 소설 급 회곡에 취하여」를 이루는 기본 골격이라 할 원, 명, 청 시대의 소설과 회곡 발달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건식의 문제의식은 그중에서 중국 대문호 총서의 머리말에서 일부를 따온 결과다(동신 23-39).<sup>3</sup> 그렇다면 하더라도 「지나의 소설 급 회곡에 취하여」의 후미를 장식한 실천적인 진단과 제언은 필시 양건식의 고유한 목소리다.

이 지나의 소설, 회곡이 조선에 수입되어 조선 문학에 여하한 영향을 급  
(及)게 하였는가 하면 ... 차(此) 이외에는 대개 평민문학과 번역문학을

3. 藤田劍峯 외, 「支那文學大綱に就す」, 『支那文學大綱』, 전 20권, 東京: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897-1904.

촉진함이니 조선의 평민문학 즉 소설, 희곡은 개(概)히 지나 작품에 반영되어 저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을 다분히 차(此)에서 취하였으며, 또 번역문학에 지(至)하여는 이시(伊時) 역문이 금일에도 상(尙)히 기급(企及)지 못할 특색이 유(有)하니 구일 각 궁가(宮家)와 소위 세책가에 재(在)하던 지나소설(희곡은 난해의 작(作)으로 『서상』(西廂) 이외에는 역출이 고무(姑無)하니라)의 언역본(諺譯本)은 수(誰)의 수(手)에 역출되었는지 부지(不知)하겠으나 능히 복잡한 문장과 난잡한 속어를 원형 명쾌하게 번역적 취미(臭味)가 무(無)히 선역(善譯)하여 일종의 독특한 조선을 성(成)케 한 감이 유(有)케 하고 차(此)로 이(以)하여 일반 저급 독자에게 고상한 문예적 취미를 보급케 한 것은 그 공이 대(大)하다 가위(可謂)하겠도다. (4: 1)

양건식은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이유, 자국문학과 번역문학 사이의 내밀한 접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응답했다. 그동안 문학사적으로 소외된 원대 이후의 소설과 희곡은 예컨대 『홍길동전』이나 『동상기』(東廂記)를 낳기도 했지만 가장 큰 공적은 평민문학과 번역문학을 흥기시켰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조선의 소설과 희곡이 대체로 중국문학의 영향력 아래에서 배태되었음은 물론이요, 한글 번역을 통해 원작과 구별되는 특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설명이다. 번역문학이 고상한 문예 취향을 보급한 공헌을 고평한 양건식은 중국소설의 비현실성, 조선의 평민문학이 공상이나 미신을 추종한 혐의에 대한 비판을 덧붙여 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건식의 시각은 중국소설 번역이 국문학 성립의 호조건을 놓치고 말았다는 이광수의 인색한 평가와 확연히 갈라진다. 특히 번역문학의 역사적 공과를 통해 자국 근대문학의 실천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방법론에서 이광수와 양건식은 사뭇 다른 태도를 취했다. 한문과 국문의 대결 구도를 통해 언어적 자각과 주체성의 발견을 강조한 이광수는 당대의 현실에서 재료를

취하고 “조선인의 사상 감정을 유로(流露)한 자”(『문학이란』 8: 1)를 조선 문학으로 명명했다. 따라서 “조선문학은 오직 장래가 유(有)할 뿐이요 과거는 무(無)하다”고 날을 세우면서 조선 사회, 인생의 각 방면과 인정세대의 기미를 표현하는 것을 신문학의 과제로 제시했다. 양건식은 “조선과 비교적 습속이 근사한 저 지나의 그 사상 감정과 상상의 반영인 소설과 희곡의 평민문학을 연구하여 금일 일부 청년 문사에 의하여 수입되는 서양문학과 선(善)히 융합 조화하여 조선문학에 공헌”할 것을 주문했다(『지나의』 4: 1).

이광수와 양건식은 공히 번역문학이 자국 근대문학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자국문학과 번역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층 실질적으로 파고든 것은 양건식이다. 또한 근대적인 문학 관념에 입각하여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을 타자화한 점은 공통적이며 중국문학 번역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서양문학 번역과 나란히 놓은 것은 오로지 양건식의 몫이다. 양건식이 경사시부(經史詩賦)의 오랜 유산이 아니라 소설과 희곡을 위주로 삼은 평민문학을 논점으로 부상시킨 안목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중국문학과 서양문학 번역의 융화를 촉구한 대목도 일신된 통찰임이 틀림없다. 지극히 일반적인 발언처럼 보이기 십상이지만 한국문학의 외부에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을 함께 배치하고 양자의 번역을 함께 문제 삼은 시선은 그 자체로 전무후무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양건식이 목소리를 높인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은 결코 공소한 선언으로 머물지 않았다. 자료 고증의 제약과 참고 서적 구득의 어려움을 토로한 데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듯이 양건식은 두드러진 전문성을 발판으로 번역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당장 이듬해인 1918년 3월부터 양건식은 청대의 백화소설 『홍루몽』 번역에 나섰다. 당대 유일의 한국어 중앙 일간지 『매일신보』에 처음으로 중국문학이 연재되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런가 하면 상하이를 거점으로 삼은 문학혁명론을 발 빠르게 소개하고 동시대의 중국 근대문학을 번역한 것도, 루쉰(魯迅)의 「아Q정전」(阿Q正傳)을 일본

보다 앞서 번역한 것도 곧 양건식이다(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54-56; 「박태원과」 3-5).

그뿐이 아니다. 양건식은 스스로 가치를 든바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균형 잡힌 번역을 실천하기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입센(Henrik Ibsen)의 희곡 『인형의 집』을 처음 한국어로 완역하는 데에 성공한 양건식은 잇따라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엘리너 글린(Elinor Glyn), 모리스 르블랑(Maurice Leblanc),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을 선보였다. 1910년대뿐 아니라 식민지시기를 도통하여 양건식 말고는 중국문학에 진력한 번역가를 달리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전근대문학과 근대문학,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을 동시에 번역한 경우는 단언컨대 양건식이 유일무이하다. 그러한 뜻에서 양건식이야말로 번역문학을 통해 자국 근대문학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가능하게 한 기념비적인 번역 주체라 일컬어야 마땅하다.

### Ⅲ. 중역의 사상과 동아시아의 세계문학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해 독보적인 감식안을 선보인 양건식이 대작 『홍루몽』 번역에 착수한 것은 이광수의 두 번째 장편소설 『개척자』가 마무리되고 난 뒤의 빈 자리다. 신문 연재에 앞서 번역가는 『홍루몽』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의 구실을 맡은 평론을 발표했으니 『무정』 개막 전야에 근대문학론을 내놓은 전력과 매한가지로 이례적인 일이다. 양건식은 원작의 성격, 가치, 등장인물, 작가를 조리 있게 간추린 뒤에 번역에 나선 경위와 의의, 번역 태도와 방법을 차례로 제시했다.<sup>4</sup>

양건식의 『홍루몽』 번역은 비록 미완으로 그쳤으나 중국의 백화문학을

4. 양건식, 「『홍루몽』에 취(就)하여」, 『매일신보』 1918.3.21: 1; 양건식, 「홍루몽」, 전 138회, 『매일신보』 1918.3.23-10.4: 1.

세련된 근대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해 보인 성과다. 양건식의 선편에 힘입어 국내 유일의 한국어 중앙 일간지에 청말의 백화소설이 잇따라 번역되고, 민국(民國) 초기의 원앙호접파(鴛鴦胡蝶派) 문학을 대표하는 인기 작가 쉬전야(徐枕亞)의 변려체(駢儷體) 소설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매일신보』의 중국소설 번역은 삼일운동 전후의 연재 작가 공백과 고정 지면 붕괴를 미봉하기 위한 교육책이었으므로 192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힘을 잃고 말았다(박진영, 『번역과』 457-58; 472-74).

그렇다 해도 기껏해야 일 년 남짓 이어진 중국문학 번역의 주역인 동시에 최대 수혜자가 양건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홍루몽』 번역을 기화로 최초이자 최고의 중국문학 전문가, 『홍루몽』 번역과 홍학(紅學) 중계의 일인자로 떠오른 양건식은 얼마 후에 소략하나마 재차 번역을 시도했으며 『홍루몽』의 고증을 둘러싼 평론을 거듭 발표했다.<sup>5</sup> 사실상 유일무이한 중국문학 전문 번역가이자 평론가라 할 양건식은 1920-30년대에 중국 고전, 역사소설, 의화본(擬話本), 백화희곡, 신시, 단편소설, 근대극, 평론을 지속적으로 번역하여 내놓았으니 가히 식민지시기를 도틀어 최대 규모의 번역가다.

중국 고전 번역에서 선구적 역할을 자처한 양건식은 다른 한편으로 동시대 문학을 시야에 포착함으로써 중국문학 번역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오사운동 전후에 상하이에서 접화된 신문화 운동과 신문학론을 새로운 시대정신과 상상력의 동력원으로 전환시킨 공적 역시 양건식의 몫이다.<sup>6</sup> 양건식은 후스(胡適)와 천두슈(陳獨秀)의 문

5. 양건식, 「석두기(石頭記)」, 전 17회, 『시대일보』 1925.1.12-6.8: 4; 양건식, 「『홍루몽』 시비—중국의 문제 소설」, 전 17회, 『동아일보』 1926.7.20-9.28: 3; 양건식, 「중국의 명작 소설—『홍루몽』의 고증」, 전 17회, 『조선일보』 1930.5.26-6.25: 4.

6. 양건식, 「후스(胡適) 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 『개벽』 5-8. 경성: 개벽사, 1920.11-1921.2; 양건식, 「신시담(新詩談)」, 전 4회, 『동명』 37-40. 경성: 동명사, 1923.5.13-6.3.

학혁명론에 주목하고 루쉰의 이름을 처음 거론함으로써 중국문학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에서 획기적인 비약을 이끌어 냈다. 양건식이야말로 번역 실천을 통해 중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대적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번역가라 일컫기에 모자람이 없다.<sup>7</sup>

그런데 「소설 『서유기』에 취하여」, 「지나의 소설 급 희곡에 취하여」의 골자가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받아쓰면서 양건식의 시각으로 번역문학과 한국문학사에 대한 의역이나 해석을 덧붙인 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홍루몽』에 취하여」, 「후스 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도 사정은 매일반이다. 「『홍루몽』에 취하여」에서 번역가의 목소리가 담긴 대목은 『홍루몽』 번역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부분적인 개역과 구체적인 번역 방침을 밝힌 후반부다. 오사운동의 성취를 둘러싼 동시대적인 호흡의 가능성을 개척한 문학혁명론은 일본의 학술지에 실린 글을 민첩하게 번역한 것임을 또렷이 밝히면서 간간이 양건식의 소견을 덧붙였다. 양

- 
7.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서 양건식이 담당한 선구적인 지위와 역할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꼽아 둔다. 이석호, 「중국문학 전신자로서의 양백화—특히 중국 희곡의 소개 번역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13 (1976): 117-32; 박재연, 「양백화의 중국문학 번역 작품에 대한 재평가—현대희곡과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 (1988): 249-73; 고재석, 「양건식의 문학사적 소의와 재평가」, 『한국 근대문학 지성사』, 서울: 깊은샘, 1991, 122-29; 고재석, 「백화 양건식의 생애와 문학」, 『숨어 있는 황금의 꽃』,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0, 165-256; 최용철, 「양건식의 『홍루몽』 평론과 번역문 분석」, 『중국어문논총』 6 (1993): 267-314; 최용철, 「백화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와 번역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28 (1996): 573-602; 성현자, 「백화 양건식의 중국 신문학 운동 수용 연구」, 『비교문학』 24 (1999): 298-327; 김영금, 「백화 양건식 문학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왕철, 「백화 양건식의 번역문학—중국 신문학 운동 번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2010; 동신,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강대학교, 2011; 왕성, 「중국 현대문학 번역에 나타난 양건식의 문학관—『탁문군』, 『반금련』 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6 (2012): 191-210; 정선경, 「근대 시기 양건식의 중국 고전소설 번역 및 수용에 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73 (2012): 351-77; 정선경, 「양건식의 중국 신문학 운동 수용과 번역의 태도」, 『중국어문학논집』 79 (2013): 417-48; 왕녕, 「식민지 시기 중국 현대문학 번역자 양백화, 정내동의 역할 및 위상」,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13.
-

건식의 중국문학론이란 직수입된 것이 아니요 일본어 번역, 일본의 지나학(支那學)이나 동양학 연구를 경유하여 중역(重譯)된 셈이다(동신 16-23).

따라서 양건식의 중국문학 번역이 일본어 중역을 바탕으로 삼은 일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소상히 검증하지 못했으나 『홍루몽』 번역조차 일본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홍루몽』에 대한 고증과 도입부의 일부를 검토해 보면 1916년에 출판된 분교사(文教社)판<sup>8</sup> 번역의 흔적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일본어 중역의 혐의는 일찍이 제기된 바 있으나 더 이상 알리마이가 논증되지 못한 처지다(최용철 227). 또한 양건식이 가장 높이 평가한 『수호전』은 세 종의 일본어 번역에서 오역을 짚어 낼 정도로 교차적으로 참조되었다. 1925-26년에 70회본에 의거하여 『수호전』을 번역한 양건식이 상하이에서 새로 출판된 120회본을 얻어 본 것은 십 년 뒤인 1935년에 이르러서의 일이다(유춘동 125-27).<sup>9</sup> 그리고 보자면 1929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총 859회에 걸쳐 장기 연재된 『삼국연의』도 별다를 수 없으리라 추정된다. 일본어판과 중국어판 『수호전』이 양건식의 손에 들어간 십 년 거리의 한중간에서 『삼국연의』가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대체 어찌 된 노릇일까?

뜻밖의 난국처럼 보이지만 양건식의 공적에 대한 지나친 과장을 삼가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 양건식의 행적과 활동상이 조명되고 두 차례에 걸쳐 양건식 선집이 편찬되면서 중요한 일차 자료가 대부분 수습되었다.<sup>10</sup>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거나 부분적인 오류가 남아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양건식은 적어도

8. 悼紅軒, 『新譯 紅樓夢』上, 岸春風樓譯, 東京: 文教社, 1916.

9. 양건식, 「수호전」, 『신민』 8-18, 경성: 신민사, 1925.12-1926.10; 양건식, 「『수호전』 이야기」, 전 2회, 『동아일보』 1926.1.2-3: 4-5; 양건식, 「오자표경(五字嫖經)」, 『문예시대』

1. 경성: 문예시대사, 1926.11, 59-60; 양건식, 「『수호』 재론」, 『매일신보』 1935.8.14: 1.

10. 박재연, 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1, 서울: 지양사, 1988; 남윤수, 박재연, 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전 3권,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1920년대 말까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했다. 또한 양건식 선집에는 몇몇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필명의 자료가 뒤섞여 있는 형편이다.

양건식은 열여덟 살 때인 1907년 3월에 일본어 전문 교육 기관인 관립한성일어학교를 졸업했다. 교동에 위치한 관립한성일어학교는 1909년 10월에 관립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다가 1911년 11월에 폐교되었다(이광린 178-85). 양건식의 학력은 지금까지 모호하게 추정되어 왔으나(고재석 73-77) 중국어 학교인 관립한성한어학교가 아니라 관립한성일어학교에서 수학했다. 일어 숙성과가 설치되기 이전인 데에다가 3년제로 수업 연한이 단축된 직후에 졸업했으니 양건식은 3학기 4년제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한 것이 틀림없다. 양건식은 1907년 3월 29일에 배출된 관립한성일어학교 제9회 졸업생 서른다섯 명 가운데 하나다.<sup>11</sup>

관립한성일어학교 졸업 직후에 양건식이 『대한매일신보』에 짤막한 이야기를 투고하다가 그만둔 점으로 보아 이야기꾼의 면모를 띤 것이 사실이지만 근대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sup>12</sup> 또 타향 유학과 관료 생활을 거쳤다고 회고했으나 자취가 묘연하다. 양건식은 스물여섯 살 때에 불교 전문지 편집을 맡다가 『매일신보』를 통해 평론을 선보인 뒤에야 중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양건식은 그 사이에 과작이지만 중요한 단편소설을 선보였고 1918년 2월에 수작 「슬픈 모순」을 내놓기도 했으나 그 후로는 한사코 창작에 한눈팔지 않았다. 양건식이 중국문학 번역에 투신한 계기는 분명치 않다.

특히 양건식이 십여 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했다는 단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 다시 스무 살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서른일곱 살의 양건식이 십 년 동안 중국에 유학하고 싶다

11. 『황성신문』 1907.3.29: 1; 『황성신문』 1909.3.16-18: 3-4.

12. 『대한매일신보』 1908.3.12; 1908.5.3; 1908.5.5: 2-3.



고 답했을 따름이다. 평텐(奉天)에서 인력거꾼이나 경찰과 필담으로 소통하려다 실패했다는 해프닝은 말 그대로 에피소드에 불과할지 모른다.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회고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양건식의 중국 유학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오독이다.<sup>13</sup> 오독을 바탕으로 양건식에 대한 신화화가 되풀이되면서 갖가지 착오와 편견을 낳았다. 박태원이 양건식에게서 한학이나 중국문학을 사사하면서 번역의 밑거름을 닦았다는 통념은 소소한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박진영, 「박태원과」 2-3).

가장 심각한 난맥상은 중국문학 번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취급되어 온 『중국 단편소설집』이다.<sup>14</sup> 오사운동 전후의 성과가 집약된 유일한 근대 단편 앤솔러지인 『중국 단편소설집』은 두 차례에 걸쳐 양건식 선집이 정비될 때 수록되었기 때문에 으레 양건식의 솜씨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니라 눈부신 성취로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나 『중국 단편소설집』의 실제 번역가는 양건식이 아니며, 1920년대 최고의 종합 월간지 발행처인 개벽사에서 기획 출판된 시대정신의 산물이다(박진영, 「중국문학 및 일본문학」 269; 「중국 근대문학」 51-52).<sup>15</sup>

반면에 루쉰의 「아Q정전」을 비롯하여 텐한(田漢)의 희곡 「카페의 일야(一夜)」와 같이 양건식의 중요한 근대문학 번역 공적이 작품 목록과 선집에서 모두 빠졌다. 양건식은 현대 백화문으로 된 루쉰의 「아Q정전」을 번역하면서 저지른 술한 오역 탓에 중국 유학생 출신인 정내동의 편견과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다. 풋내기 번역가 정내동은 루쉰에 대한 평가에서 양건식과 확연히 다른 시각을 견지했을 뿐 아니라 옌푸(嚴復)가 『천연론』(天然論)의

13. 양건식, 「만일 내가 다시 이십 살의 청년이 될 수 있다 하면—유학 십 년」, 『동광』 8. 경성: 동광사, 1926.12. 15-16; 양건식, 「내가 제일 창피하던 일—필담하다 대실수」, 『별건곤』 11. 경성: 개벽사, 1928.2. 88-89.

14. 『중국 단편소설집』, 경성: 개벽사, 1929.

15. 지금까지 『중국 단편소설집』의 번역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연구자는 이시환이 유일하다. 이시환, 「일제 강점기 한국 작가들의 중국 현대문학 바라보기와 수용 양상」, 『중국학』 33 (2009): 1-7.

「번역 범례」에서 번역의 원칙이자 방법론으로 제시한 신(信), 달(達), 아(雅)의 세 가지 조건을 들먹거릴 정도로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 주었다.<sup>16</sup>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루쉰을 번역한 일본의 경우보다 양건식이 앞서 성과를 내놓은 바람에 일본어 중역 경로를 참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어에 의존하여 중국문학에 접근한 양건식은 가장 뼈아픈 급소를 정내동에게 찔린 것이나 다름없다(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55-56).

일본어 중역으로 앞길을 튼 중국문학 전문 번역가의 입지란 일견 기묘하게 여겨질 법하지만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양건식이 일본어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일지 모른다. 미담의 영역이라 할 중국문학을 외국문학의 하나로 재발견해 내는 일 자체가 일본을 건너뛰고서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역문학이라는 새로운 관념, 번역 대상으로서 중국문학, 동시대의 신문학과 문학혁명론은 어디까지나 양건식이 일본 학계의 평론이나 연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덕분이며,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연대 가능성은 일본어 중역이라는 도화선을 타고 촉발되었다. 문제의 정곡은 중역이 아니라 중역의 효과에 놓여 있다. 무슨 뜻인가?

『홍루몽』을 미완으로 남겨 둔 채 청말의 공안소설 『기옥』(奇獄)을 연재한 양건식은 삼일운동 후 『매일신보』에 돌연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을 내걸었다. 박계강(朴桂岡)과 공역한 『인형의 가(家)』는 그 전해인 1920년에 여성 잡지 『신여자』를 통해 공연 무대에 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양건식은 『신여자』 편집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공역자는 박인덕으로 짐작된다. 이듬해에 『인형의 가』가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에는 제목이 『노라』로 바뀌고 번역가로 양건식의 이름만 올랐다. 신문 연재를 마치자마자 원작의 성격과 의의를 논한 별도의 평론을 양건식이 발표한 것으로 보더라도

16. 2013년 1학과 2학기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에서 진행된 일차 자료 비교와 토론을 통해 큰 도움과 값진 시사를 얻었다. 양건식, 「아Q정전」, 전 24회, 『조선일보』 1930.1.4-2.16: 4; 정내동, 「아Q정전」을 읽고, 전 4회, 『조선일보』 1930.4.9-12: 4.

『인형의 가』는 필시 양건식의 주도로 번역이 진행되었을 것이다.<sup>17</sup>

근대극의 효시가 된 『인형의 집』은 1918년 6월에 발행된 『신청년』 입센 특집호를 통해 시대적인 문제작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양건식의 눈에 포착되고 번역된 것이 자연스럽지만 막상 중국어 번역이 참조된 흔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양건식은 번역에 앞서 두 종의 일본어 번역과 한 종의 영어 번역을 상호 참조한 중역임을 명시했다. 또 「『인형의 가』에 대하여」에서도 세 종의 번역을 교합(校合)했다고 거듭 밝혔다. 양건식은 차례로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 파커슨 샤프(Farquharson Sharp), 다카야스 겐코(高安月郊)의 이름을 꼽았다(김재석 12-22).<sup>18</sup> 양건식이 굳이 일본어 번역가와 영어 번역가를 섞은 데에다가 번역 순서로 보아서도 거꾸로 나열한 까닭은 당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마무라 호게쓰의 번역에 주로 의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건식은 영역본을 포함시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다면 다카야스 겐코를 추가하여 최초의 일본어 번역부터 메이지 말기까지 이루어진 성과를 포괄한 셈이다(川戸道昭, 榊原貴教, Vol. 2 (2009): 101-19; 川戸道昭, 榊原貴教, Vol. 9 (2012): 258).

『인형의 가』를 성공적으로 완역한 뒤에 덧붙인 「『인형의 가』에 대하여」는 입센의 발언과 유럽의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번역의 소산이다. 양건식은 문제적인 사회극의 성격과 예술적 성취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한 전반부가 시마무라 호게쓰의 견해를 밝혔다. 극작가의 창작 경위와 의도, 원작이 유럽에 끼친 파장과 의의를 논한 평론의 후반부는 출처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간접 인용의 어투를 사용했다. 따라서 뢰자룬(羅家倫)과 후스의 번역, 후스의 「입센주의」, 위안전잉(袁振英)의 「입센전」은 언급될 겨

17. 양건식, 박계강. 「인형의 가(家)」. 전 60회. 『매일신보』 1921.1.25-4.3: 1; 양건식. 「『인형의 가』에 대하여」. 전 4회. 『매일신보』 1921.4.6-9: 1; 양건식. 『노라』. 경성: 영창서관, 1922.

18. 양건식, 박계강. 「인형의 가」 1, 『매일신보』 1921.1.25: 1; 양건식, 「『인형의 가』에 대하여」 4, 『매일신보』 1921.4.9: 1.

틀이 없었다. 양건식은 단행본으로 출판된 『노라』에 머리말을 붙이면서 여성 문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조금 옮겼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매개를 생략한 인용 태도를 지키면서 끝내 번역가의 목소리를 아꼈다.<sup>19</sup>

원작과 한국어 번역이 마치 지근거리에서 맞대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건식의 평론과 머리말은 어차피 북유럽의 원작에서 직역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아이러니다. 양건식은 근대 한국의 여성이 처한 현실을 환기하기보다 시종일관 원작의 예술적 문제성, 인생의 모순을 다룬 문학적 가치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을 경유한 『인형의 가』는 그러한 뜻에서 『신청년』의 입세니즘에 동반된 반봉건적 투쟁성과 별반 호응하지 않았다(장정 186-91). 「후스 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에서 입센 특집호와 근대극 운동을 명료하게 의식한 점을 떠올린다면 양건식의 선택은 단지 언어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양건식, 「후스 씨를」 3: 142-44).

그 대신 양건식의 중역은 “원전 확인의 욕망”이라 일컬어질 만큼 유례없는 정확성과 성실성을 보여 주었다. 동아시아의 후발 주자로서 번역가 양건식은 일본어 번역의 절대적 권위를 용납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교합을 시도했으며, 다양한 오역의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바로잡았다(김재석 31-33). 상례와 달리 양건식은 『노라』가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 몇 군데에서 오류를 교정하는 공을 들이기도 했다. 노르웨이 원작에 대한 충실성이 애초에 불가능한 욕망이라면 양건식은 중역을 통해 리터래처를 향한 도약, 번역문학이 꿈꿀 수 있는 최대치로서 독자적인 문학 작품을 욕망했는지 모른다.<sup>20</sup>

양건식의 일본어 중역이 거둔 성과는 또 있다. 한창 청대의 백화회곡에 열중하기 시작한 와중에 양건식은 서양문학 번역을 나란히 진행했다. 최남선이 창간한 주간지 『동명』에 신시, 역사소설, 청대의 백화회곡을 잇달

19. 양건식, 「역자언(譯者言)」, 『노라』, 경성: 영창서관, 1922, 8-14.

20. 2012년 1학기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에서 진행된 양건식과 이상수 번역의 비교 및 중역 경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큰 도움과 값진 시사를 얻었다.

아 연재한 양건식은 다시 『매일신보』로 돌아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번역하여 연재했다. 비록 제1부 번역에 그쳤지만 양건식의 손으로 괴테 문학이 처음 한국어로 번역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흥미롭게도 양건식은 저명한 중국문학자 구보 덴쓰이(久保天隨)의 괴테 번역을 따랐다.<sup>21</sup> 『삼국지연의』와 『신역 연의삼국지』의 번역가이기도 한 구보 덴쓰이는 양건식의 중국문학 번역에서 중요한 참조 체계에 속해 있었다. 특히 『신역 연의삼국지』는 이른바 모종강(毛宗崗)본으로 불리는 120회본을 처음으로 완역한 것이니 양건식의 번역 지평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확연하다(川戸道昭, 榊原貴教 編, Vol. 10 (2012): 117).<sup>22</sup>

『소년 베르테르의 비뇌』를 미완으로 남겨 둔 양건식은 청초의 장편 곤곡(崑曲) 『장생전』을 상당한 분량의 주석을 붙여 완역했다. 양건식이 괴테의 서간체 소설에 손댄 것은 『장생전』 번역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제2부까지 완역하는 일에는 미련이 없었다.<sup>23</sup> 끝이어서 양건식은 영국의 여성 작가이자 동시대의 대중적인 인기 작가인 엘리너 글린의 장편소설 『삼 주간』(Three Weeks)을 후속타로 내놓았다. 엘리너 글린의 원작은 1907년에 출판된 지극히 통속적인 애정소설로 1914년에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양건식은 『삼 주간』이 일본어로 출판되자마자 한국어로 번역했으나 연재 도중에 멈춰 버렸다. 그런가 하면 양건식은 엘리너 글린의 소설 연재와 더불어 다른 지면을 빌려서는 모리스 르블랑이 낳은 회대의 괴도이자 모험적인 영웅 아르센 뤼팽을 선보였다. 최남선이 창간한 일간지 『시대일보』의 첫 호를 장식한 연재소설이 바로 양건식의 『협웅록』이다(김병철 613-14; 620-21). 양건식은 그

21. 久保天隨, 『うえるてる』, 東京: 金港堂, 1904; 양건식, 「소년 베르테르의 비뇌(悲惱)」, 전 40회, 『매일신보』 1923.8.16-9.27: 1.

22. 久保天隨, 『三國志演義』, 東京: 隆文館, 1906; 久保天隨, 『新譯 演義三國志』, 전 2권, 東京: 至誠堂書店, 1912.

23. 양건식, 「명일부터 역재(譯載)하는 『장생전 전기(長生殿傳奇)』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3.10.2: 1; 양건식, 「장생전」, 전 153회, 『매일신보』 1923.10.3-1924.3.13: 1.

밖에도 불교 전문지에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번역하기도 했다.<sup>24</sup>

요컨대 양건식의 서양문학 번역은 중국문학 번역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문학 번역이 고전 백화문학에서 근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서양문학 번역은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문학, 북유럽의 근대극, 동시대의 통속소설과 추리소설을 넘나들었다. 양건식이 일찍이 간과한바 평민문학과 번역문학을 통한 자국문학사의 재발견,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안배를 통한 근대문학사의 발흥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양건식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서양문학의 압도 속에서 중국문학을 번역의 타자로 포착해 낸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다. 식민지시기에 서양문학이 아닌 것, 외국문학의 하나로서 중국문학의 기원을 보여 준 번역가가 곧 양건식이다. 한국의 중국문학 번역이 일본어를 경유하여 성립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중역이 타고난 비참한 운명이 아니다. 중국문학 번역과 문학혁명론은 물론이려니와 번역문학에 대한 관념 자체가 일본의 영향과 중역에서 촉발되었으며, 그러한 역량이 축적된 덕분에 서양문학과 중국문학, 전근대문학과 근대문학이 동시적으로 번역될 수 있었다. 양건식이 거둔 성취의 진가는 동시대의 중국문학을 포함시켜 세계문학을 바라본 미증유의 번역주체라는 점에 놓여 있다.

식민지 시기의 번역문학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중역 덕택에, 혹은 중역을 통해서만 동아시아의 세계문학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일지 모른다. 고전과 근대, 서양과 중국, 중국과 일본, 중역과 직역을 번갈아든 양건식의 번역문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의 근대 번역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실천적으로 제시했다. 최초의 중국문학 전

24. 양건식, 「삼 주간」, 전 96회, 『매일신보』 1924.3.18-6.8: 1; Elinor Glyn, *Three Weeks*, New York: Duffield & Company, 1907; 北澤秀一, 『三週間』, 東京: 新光社, 1923; 양건식, 「협웅록」(俠雄錄), 전 108회, 『시대일보』 1924.3.31-9.9: 4; 保篠龍緒, 『奇巖城』, 東京: 改造社, 1920; 양건식, 「싯다르타」, 전 7회, 『불교』 22-29, 경성: 불교사, 1926.4-11.

문 번역가이자 식민지 시기 최대 규모의 번역 주체에게 중역이야말로 일  
본의 학술 기반, 출판 환경, 인적 역량을 공유하거나 입차하는 유일한 경로  
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어 중역이란 단연코 한국 근대문학사가 상  
속받은 역사적 자산의 일부다.

#### Ⅳ. 번역된 문학의 역사라는 것

근대 한국어 번역이 중역의 기원을 숨기고 있으며, 번역어로서 번역문  
학이 역사적 개념이자 문학사적 효과라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 자국문학  
이 술한 타자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할 수밖에 없으며, 자국어  
로 중역된 번역문학이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근  
대문학 초창기에 이광수와 양건식이 보여 준 타견의 가치는 번역문학이  
자국 근대문학사의 일익으로 포섭될 뿐 아니라 자아와 타자 사이의 교류  
나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축임을 꿰뚫어 본 대목에 있다. 특히 양건식  
은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에 대한 상상, 일본어 중역이라는 모형을 통  
해 한국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관념이 존립할 수 있는 지평을 확장시켰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기의 한국에서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 중역된 세계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학을 둘러싼 물음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은 여전히 한국어 번역이라는 구체적 실천일 터  
다. 편의상 지금까지 살펴본 이광수와 양건식의 앞뒤에서 포착되는 최남  
선과 김진섭의 사례만 간략하게 짚어 두기로 하자.

외국의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자의식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내보인  
것은 신문관(新文館)의 편집자 최남선이다. 『청춘』 창간호부터 연속 기획  
으로 자리 잡은 「세계문학 개관」은 한국에서 세계문학이라는 용어가 전면  
에 등장한 첫 사례다.<sup>25</sup> 최남선이 활용한 세계문학의 뜻과 용례는 외국

25. 「세계문학 개관」, 『청춘』 1-9. 경성: 신문관, 1914.10-1917.7.



문학, 엄밀히 따지자면 서양문학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인 내포는 일찌감치 괴테가 주창한바 보편적인 교양으로서 세계문학을 의미한다. 최남선의 세계문학은 무엇보다 번역이라는 실천을 통해 유럽의 문학 정신과 전통을 한국의 근대문학에 동기화(同期化)함으로써 당대 문학 질서의 재편을 겨냥했기 때문이다(박진영, 「편집자의」 426-34).

반면에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을 직접 인용한 김진섭의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회가 결성되고 『해외문학』을 창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진섭은 뜻밖에도 세계문학의 시대가 진작 도래했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했다(김진섭 35-45). 김진섭에게 세계문학이란 자명한 이념이요 완전히 실현된 가치였으니 괴테의 본뜻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다(김연수 136-43; 박진영, 「편집자의」 435-36). 김진섭은 괴테를 오독하기보다 오용하면서 자국어 번역은 물론 자국문학의 독립성마저 끼어들 틈이 없는 세계화된 문학 혹은 세계 문단을 내세웠다.<sup>26</sup>

정작 문제는 김진섭을 비롯한 외국문학연구회와 해외문학과가 실제 번역에 힘을 기울이지 않거나 매우 미숙했다는 데에 있다. 외국문학이나 해외문학이라는 용어를 고집한 점에서 잘 드러나듯이 젊은 유학파이자 외국 문학 전공자에게 번역문학의 역사성이나 실천성에 대한 의식은 대단히 희박했다. 실제로 1920년대 후반에 김억, 양주동과 벌인 번역 논전이라든가 1930년대 중반의 이른바 해외문학과 논쟁에서 김진섭, 이하운, 이현구는 쟁점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이나 오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일관하며 웅색한 자기변명에 급급했을 따름이다(김윤식 146-76; 김병철 755-66; 김영민 435-57).

또 외국문학연구회와 해외문학과가 자랑스레 여긴 중역 거부나 원문에 대한 충실한 직역이라는 선언조차 그대로 믿은 논자는 거의 없었고 실제

26. 최남선과 김진섭의 경우를 포함한 식민지 시기의 세계문학 관념과 구체적인 실천 양상에 대해서는 2012년 2학기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을 통해 큰 도움과 값진 시사를 얻었다.



로도 그러했다. 김진섭이 다시 나서서 번역을 둘러싼 문제성을 부각시키려 애썼지만 번역문학에 대한 회의와 세계문화의 보편성이라는 강박에 시달린 나머지 원칙적인 일반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진섭의 가장 큰 패착은 자국어 번역을 통해 복수의 타자를 발견하고 복수의 자국문학으로서 세계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실천의 가능성을 놓쳤다는 데에 있다. 어쩌면 일본어 중역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경계심에 짓눌린 탓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태는 급기야 일각에서 한국어 번역이 전연 쓸모없다는 주장이나 번역문학의 존재 의의를 전면 부정하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말았다.<sup>27</sup> 외국문학연구회와 해외문학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저력을 갖추지 못했다.

요컨대 세계문학은 자국어 번역에 의해 실현되는 이념이자 가치이며, 번역되지 않은 외국문학은 결코 자국문학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할뿐더러 세계문학을 구성하지도 못한다. 그러한 뜻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적 실천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한국의 근대 번역문학이 늘 중역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니 식민지의 중역이라는 현상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부감해야 하지 않을까(조재룡, 『번역의 유령』 125-67; 5-36; 「중역과 근대의」 9-40)? 양건식과 김진섭의 상반된 예에서 확인되다시피 깊이 숙고해야 할 난제다.

마지막으로 한국 근대 번역문학의 역사가 학문적인 시각과 방법론으로 체계화된 순간에 대해 기억해 두자. 한국의 번역문학이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는 이광수와 양건식의 비평적 통찰은 안화, 김태준, 임화의 문학사 서술을 통해 여실히 확증되었다. 특히 임화는 번역문학을 종교문학, 정치소설, 순문학으로 갈라 보면서 번

27. 김진섭, 「번역과 문화」, 전 14회, 『조선중앙일보』 1935.4.17-5.5: 3; 김동인, 「대두된 번역 운동」, 전 2회, 『조선중앙일보』 1935.5.20-23: 4; 「번역문학 시비」, 『매일신보』 1935.8.6: 1; 김동인, 「번역문학」, 『매일신보』 1935.8.31: 1.

역이 자국어의 발견과 과도기 문학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로를 적정하게 평가했다(안확 124-25; 김태준, 『조선소설사』 171-81; 『증보조선소설사』 238-51; 임화 「신문학사」 3).

한편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번역문학을 학술적인 의제로 성립시킨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김병철이다.<sup>28</sup> 김병철의 선구적인 공적은 근대 한국에서 번역문학과 세계문학이 구축한 역사성을 파악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닦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유럽 중심주의에 갇힌 비교문학론과 분리된 독자적인 연구 전통과 방법론의 기틀을 세운 점에서 김병철은 기념비적인 문학사가다(박진영, 『책의 탄생과』 361-69). 우리는 한국어 중역이 지닌 실천성과 한국 근대문학사를 관통하는 숨은 문제성을 근 사십 년 만에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

28. 김병철,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75.

---

## Works Cited

- Ahn, Hwak [안학]. *Joseon Munhaksa* [*History of Literature in Joseon Dynasty*, 조선문학사]. Gyeongseong [경성]: Hanilseojeom [한일서점], 1922. Print.
- Baker, Mona [베이커, 모나], ed. *Routledge Beonyeokhak Baekwasajeo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Trans. Hangukbeonyeokhakhoe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한국번역학회]. Paju [과주]: Hansinmunhwasa [한신문화사], 2009. Print.
- Choe, Yong-Cheol [최용철]. *Hongrumongui Jeonpawa Beonyeok* [*The Spread and Translation of Hongrumong*, 『홍루몽』의 전파와 번역]. Seoul [서울]: Sinseowon [신서원], 2007. Print.
- Dong, Sin [동신]. “Yang Geon-Sikui Junggukmunhak Yeongue Daehan Bigyomunhakjeok Gochal: Jungguk Sokmunhakui Yeongureul Jungsimeuro [Comparative Literary Study on Yang Geon-Sik’s Works Concerning Chinese Literature, 양건식의 중국문학 연구에 대한 비교 문학적 고찰: 중국 속문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MA thesis. Seoul [서울]: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1. Print.
- Go, Jae-Seok [고재석]. *Hanguk Geundae Munhak Jiseongsa* [*History of Intelligence in Korean Modern Literature*, 한국 근대문학 지성사]. Seoul [서울]: Gipeunsaem [깊은샘], 1991. Print.
- Hara, Takuya [原卓也], and Nishinaga Yoshinari [西永良成], eds. *Honyaku Hyakunen: Gaikoku Bungaku to Nihon No Kindai* [*One Hundred Years of Translations: Foreign Literature and Modern Japan*, 翻譯百年: 外國文學と日本の近代]. Tokyo [東京]: Taishukanshoten [大修館書店], 2000. Print.
- Hwang, Jong-Yeon [황종연]. *Tangareul Wihan Bipyeong* [*Criticism for the Libertine*, 탕아를 위한 비평]. Paju [과주]: Munhakdongne [문학동네], 2012. Print.
- Inoue, Ken [井上健], ed. *Honyaku Bungaku no Shikai: Gingendai Nihon Bunka no Henyou do Honkyaku* [*Visibility of Translated Literature: Transformations and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翻譯文學の視界: 近現代日本文化の變容と翻譯]. Tokyo [東京]: Shibunkakushuppan [思文閣出版], 2012. Print.

- Jo, Jae-Ryong [조재룡]. *Beonyeokui Yuryeongdeul* [*Phantoms of Translation*, 번역의 유령들]. Seoul [서울]: Munji [문학과지성사], 2011. Print.
- . “Jungyeokgwa Geundaeui Moheom: Hoengdangwa Eoneojeok Jeonhwaniraneun Munjeuisige Gwanhayeo [Double-translation and the Adventure of Modernity: On Crossing and Linguistic Transformation, 중역과 근대의 모험: 횡단과 언어적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관하여].” *Talgyeonggye Inmunhak* [*Trans-Humanities*, 탈경계 인문학] 9 (2011): 5-36. Print.
- . “Jungyeokui Insignon: Geu Modeun Jungyeokdeului Jungyeokgwa Geundae Hangugeo [Epistemology of Double-translation: Double-translation of Those All Double-translation and Modern Korean Language, 중역의 인식론: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Aseayeongu*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아세아연구] 145 (2011): 9-40. Print.
- Kawato, Michiaki [川戸道昭], and Sakakibara Takanori [榎原貴教], eds. *Sekai Bungaku Sogo Mokuroku* [*Total List of World Literature*, 世界文學總合目錄]. Vol. 9-10. Tokyo [東京]: Ozorasha [大空社], Nada Shuppan Center [ナダ出版センター], 2012. Print.
- . *Zusetsu Honyaku Bungaku Sogo Jiten* [*Total Dictionary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 illustrations*, 圖說翻譯文學總合事典]. Vol. 2. Tokyo [東京]: Ozorasha [大空社], Nada Shuppan Center [ナダ出版センター], 2009. Print.
- Kim, Byeong-Cheol [김병철]. *Hanguk Geundae Beonyeokmunhaksa Yeongu*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Translated Literature*,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Seoul [서울]: Eulyumunhwasa [을유문화사], 1975. Print.
- Kim, Jae-Seok [김재석]. “1920nyeondae *Inhyeongeui Jib* Beonyeoke Daehan Yeongu [The Study on Translation of *A Doll's House* in 1920s,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Hanguk Geukyesul Yeongu* [*Journal of Korean Drama and Theatre*, 한국 극예술 연구] 36 (2012): 11-36. Print.
- Kim, Jin-Seob [김진섭]. “Segyemunhageui Jeonmang [Prospect of the World Literature, 세계문학에의 전망].” *Hyeondaepyeyongnon* [*Modern Review*, 현대평론]. Gyeongseong [경성]: Hyeondaepyeyongnongsa [현대평론사], 4 (1927): 35-45. Print.
- Kim, Su-Yeon [김수연], ed. and trans. *Sincheongnyeoneui Sinmunhakron*
-

- [*New Literary Theory of the New Youth*, 신청년의 신문학론]. Paju [과주]: Hangilsa [한길사], 2012. Print.
- Kim, Tae-Jun [김태준]. *Jeungbo Joseonsoseolsa* [*Supplemented History of Novels in Joseon Dynasty*, 증보 조선소설사]. Gyeongseong [경성]: Hagiyesa [학예사], 1939. Print.
- . *Joseon Soseolsa* [*History of Novels in Joseon Dynasty*, 조선소설사]. Gyeongseong [경성]: Cheongjinseogwan [청진서관], 1933. Print.
- Kim, Yeon-Soo [김연수]. “Joseonui Beonyeok Undonggwa Goetheui ‘Segyemunhak’ Gaenyeom Suyonge Daehan Gochal: Haewaemunhakpareul Jungsimeuro [The Contemplation about Translation Movement in Korea and the Acceptance of the Goethe’s Concept of *World Literature*: Focusing on the School of Foreign Literature, 조선의 번역운동과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 수용에 대한 고찰: 해외문학과를 중심으로].” *Goethe Yeongu* [*Goethe Study*, 괴테 연구] 24 (2011): 123-48. Print.
- Kim, Yeong-Min [김영민]. *Hanguk Munhakbipyong Nonjaengsa* [*History of the Debate on Korean Literary Criticism*, 한국 문학비평 논쟁사]. Seoul [서울]: Hangilsa [한길사], 1992. Print.
- Kim, Yun-Sik [김윤식]. *Hanguk Geundae Munyebipyongsa Yeongu*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한국 근대 문예비평사 연구]. Seoul [서울]: Haneolmungo [한얼문고], 1973. Print.
- Lee, Gwang-Rin [이광린]. *Hanguk Gaehwasa Yeongu* [*A Study on the History of Enlightenment in Korea with Reference to the 1880s*, 한국 개화사 연구]. Seoul [서울]: Iljogak [일조각], 1999. Print.
- Lee, Gwang-Su [이광수]. “Munhagiran Hao [It is Called Literature, 문학이란 하(何)오].” No. 1-8. *Maeilsinbo* [매일신보]. 10-23 Nov. 1916: 1. Print.
- Lee, Seon-Young, et al. [이선영 외]. *Hanguk Geundae Munhakbipyongsa Yeongu*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ry Criticism*, 한국 근대 문학비평사 연구]. Seoul [서울]: Segye [세계], 1989. Print.
- Lim, Hwa [임화]. “Sinmunhaksa [New History of Literature, 신문학사].” No. 4-8. *Chosun* [조선일보]. 9-20 Nov. 1939: 3. Print.
- Miyoshi, Yukio [三好行雄], Takemori Tenyu [竹盛天雄], Yosida Hiro [吉田熙生], and Asai Kiyoshi [浅井清], eds. *Nihon Gendai Bungaku Daijiten* [*Dictionary of Japanese Contemporary Literature*, 日本現代文學大事典]. Vol. 2. Tokyo [東京]: Meijishoin [明治書院], 1994. Print.

- Nam, Yun-Su [남윤수], Jae-Yeon Park [박재연], and Yeong-Bok Kim [김영복], eds. *Yangbaekhwa Munjib* [*The Collection of Baek-Hwa Yang's Literature*, 양백화 문집] Vol. 1-3. Chuncheon [춘천]: Gangwon National UP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Print.
- National Diet Library [國立國會圖書館], ed. *Meiji, Taisho, Showa Honyaku Bungaku Mokuroku* [*List of Translated Literature in Meiji, Taisho, and Showa Period*, 明治, 大正, 昭和 翻譯文學目錄]. Tokyo [東京]: Kazamashobo [風間書房], 1959. Print.
- Nihon Kindai Bungakkan [日本近代文學館], ed. *Nihon Kindai Bungaku Daijiten* [*Dictionary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日本近代文學大事典]. Vol. 4. Tokyo [東京]: Kodansha [講談社], 1977. Print.
- Park, Jae-Yeon [박재연], and Yeong-Bok Kim [김영복], eds. *Yangbaekhwa Munjib* [*The Collection of Baek-Hwa Yang's Literature*, 양백화 문집] Vol. 1. Seoul [서울]: Jiyangsa [지양사], 1988. Print.
- Park, Jin-Young [박진영]. "Beonyeokga Jinhakmungwa Sikminji Beonyeokui Gieok [Translator Hak-Mun Jin and the Memories of Colonial Translation, 번역가 진학문과 식민지 번역의 기억]." *Baedalmal* [배달말] 53 (2013): 289-322. Print.
- . *Beonyeokgwa Beonanui Sidae* [*The Age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번역과 변안의 시대]. Seoul [서울]: Somyeongchulpan [소명출판], 2011. Print.
- . *Chaekui Tansaenggwa Iyagiui Unmyeong* [*The Birth of a Book and Faith of a Story*,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Seoul [서울]: Somyeongchulpan [소명출판], 2013. Print.
- . "Jungguk Geundaemunhak Beonyeokui Gyebowa Yeoksajeok Seonggyeok [Genealogy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s,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Hangukmunhakeoneohakhoe 2014 Haksuldaehoe*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Academy 2014 Symposium*,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학술대회]. *Munhwaemunhak Yeongu Eotteohge Hal Geotinga?* [*How Can We Study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문화어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50-68. Print.
- . "Junggukmunhak Mit Ilbonmunhak Beonyeokui Yeoksaseonggwa Sangsangnyeokui Jeopbyeon [Historicity and Imagination of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 Translations, 중국문학 및 일본문학 번역의 역사성과 상상력의 접면]." *Dongbanghakji*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 동방학지] 164 (2013): 259-85. Print.
- \_\_\_\_\_. “Parktaewongwa Junggukmunhak Beonyeokui Bungi [Tae-Won Park and Divergence of Chinese Literature Translations, 박태원과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 *Gubohakoe 2014 Haksuldaehoe* [Gubo Academy 2014 Symposium, 구보학회 2014 학술대회]: *Parktaewon Munhakhwa Segyemunhak* [Tae-won Park's Literature and World Literature, 박태원 문학과 세계문학] (2014): 1-19. Print.
- \_\_\_\_\_. “Pyeonjipjaui Tansaenggwa Segyemunhakiraneun Sangsangryeok [The Birth of an Editor and the Imagination of World Literature,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문학이라는 상상력].” *Minjokmunhaksa Yeongu* [Journal of Korean Literary History, 민족문학사연구] 51 (2013): 423-53. Print.
- Wang, Xiang Yuan [王向遠]. *Bigyomunhakui Yeolsoe* [Key of Comparative Literature, 비교문학의 열쇠]. Trans. Mun Dae-II [문대일]. Seoul [서울: Hangukhaksuljeongbo [Korean Studies Information, 한국학술정보], 2011. Print.
- Yanagida, Izumi [柳田泉]. *Meiji Shoki no Honyaku Bungaku*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Early Meiji Period, 明治初期の翻譯文學]. Tokyo [東京: Shunjusha [春秋社], Shohakukanshoten [松柏館書店], 1935. Print.
- Yang, Geon-Sik [양건식]. “Chunwonui Soseoleul Hwanyeonghanora [I Give a Welcome to Chunwon's Novels,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 No. 1-2. *Maeilsinbo* [매일신보]. 28-29 Nov. 1916: 1. Print.
- \_\_\_\_\_. “Huseu Ssireul Jungsimeuro Han Junggugui Munhakhyeokmyeong [Mr. Hu Shih's Chinese Cultural Revolution, 후스 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문학혁명].” No.3 *Gaebyeok* [개벽] 7 (1921): 139-44. Print.
- \_\_\_\_\_. “Jinaui Soseol Geup Huigoge Chwihayeo [On Chinese Novel and Drama, 지나(支那)의 소설 급(及) 희곡에 취(就)하여].” No. 1-4. *Maeilsinbo* [매일신보]. 6-9 Nov. 1917: 1. Print.
- \_\_\_\_\_. “Soseol Seoyugie Chwihayeo [A Journey to the Novel *Seoyugi*, 소설 『서유기』에 취(就)하여].” *Joseonbulgyochongbo* [Joseon Buddhism Review, 조선불교총보] 3 (1917): 47-49. Print.
- Yu, Chun-Dong [유춘동]. “Suhojeonui Guknae Suyong Yangsanggw Hangeul Beonyeokbon Yeongu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Reception of Shuihuzhuan in Korea and Korean Translations,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Diss. Seoul [서울: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 [연세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2. Print.

Zhang, Jing [張競]. *Geundae Junggukgwa Yeonaewi Balgyeon* [*Discovery of Love in Modern China*, 근대 중국과 연애의 발견]. Trans. Im Su-Bin [임수빈]. Seoul [서울]: Sonamu [소나무], 2007. Print.



## Abstract

### The Beginning and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Modern Translated Literature in Korea

Jin-Young PARK (Yonsei University)

Lee Gwang-Su and Yang Geon-Sik were the first to suggest the terminology of *translated literature* as a historical concept in Korea. Lee and Yang shared a modern notion of literature as introduced through Japan, and by grasping Chinese letters and Chinese literature as *the other*, they started to perceive the identity of the native language (national language) and native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in the context of literary history. Yang in particular perceived Chinese literature as foreign literature, and clearly showed a sense of identity i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native literature through translation. Yang Geon-Sik was the first professional translator of Chinese literature, and was the largest translating agent in the colonial period. He translated colloquial Chinese literature (*báihuà wénxué*) and the theory of literary revolution through double translations (second-hand translations) from Japanese, and changed the perception of Chinese literature into a modern one. Yang Geon-Sik was able to comprehend Chinese literature within the context of world literature by moving in and out of Western literature and Chinese literature, between classic and modern literature, and double translation (secondhand translation) and direct translation. By examining the beginnings of translated literature in Korea, the practicality of double translations (secondhand translations) and the historicity of world literature in East Asia can be re-evaluated.

**Keywords:** translated literature, world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native literature), double translation (secondhand translation), Lee Gwang-Su, Yang Geon-Sik

---

**Jin-Young PARK** is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has a Ph.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His field is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ranslated literatur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ed and adapted literature, modern printing, and publication culture. He is the author of *Dictionary of Adapted Novels* (2008), *The Complete Collection of Translated Novels Published by Sinmungwan* (2010), *The Age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2011), *The Birth of a Book and the Faith of a Story* (2013), and more.

bookgram@naver.com

Received: 6 May 2014 Reviewed: 25 May 2014 Accepted: 1 June 2014
--